

목포 남항, 친환경선박산업 산실로 거듭난다

3만2500㎡ 친환경선박클러스터 내년초 착공 2023년초 완공 연구·시험·인증·인력양성 기반 갖춰...전기 선박 개발 등 사업



'남항항구'로 불리는 목포시가 친환경선박산업의 메카로 거듭난다.

목포시에 따르면 남항부지 3만2500㎡(1만평)에 내년초 착공에 오는 2023년 초 완공을 목표로 친환경선박클러스터를 조성한다. <사진>

연구·시험·인증 등을 위한 모든 물적 기반을 갖춘 이 곳에서는 선박해양분야 유일의 정부출연 연구소인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KRISO)의 '친환경연료추진연구본부'가 설립돼 연구거점 역할을 수행한다.

또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UST)의 석박사 학위과정(그린모빌리티 전공)이 본격적으로 운영돼 2024년에는 1기 졸업생이 배출된다.

시는 클러스터가 조성되면 연간 4만9000여명의 고용유발 효과와 2조1000억원의 경제적 파급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친환경선박은 기후위기로 일컬어지는 심각한 온난화의 대안으로 부상하고 있다. 전세계 시장 규모가 270조원으로 추정될 정도의 유망한 산업

으로, 정부에서는 목포 남항을 친환경선박산업의 터전으로 낙점했다.

목포 남항에서는 전기 추진 선박 및 이동형 전원 공급시스템 개발사업(450억원), 친환경선박 혼합연료 기술개발 및 실증사업(496억원) 등 2개의 사업이 추진 중에 있다. 특히 전기 추진 선박은 오는 12월 목포 앞바다에서 진수식을 갖는 등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

앞서 지난 7월 정부와 전남도를 비롯해 목포대와 목포해양대 대학,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등 3개 연구기관, 한국선급 등 2개 공공기관, 26개 조선·기자재·해운기업 등은 '친환경선박 생태계 조성 위한 산·학·연·관 업무협약'을 맺었다.

김중식 목포시장은 "친환경선박산업은 성장 잠재력이 대단히 큰 분야로 목포의 확실한 미래먹거리가 될 것"이라며 "친환경선박산업이 목포 경제의 든든한 축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목포=박종배 기자 pjb@kwangju.co.kr

해남군-비알코리아 농산물 공급·소비 확대 협약 고구마 아이스크림 4종 출시



국민 간식으로 사랑받고 있는 해남고구마가 프리미엄 아이스크림으로 출시된다.

해남군은 비알코리아(주)와 해남농산물 공급 및 소비확진을 위한 상생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사진>

비알코리아는 글로벌 NO.1 베스킨라빈스와 던킨도너츠를 보유한 기업으로 전국 1600여개 베스킨라빈스 매장을 운영하고 있다.

비알코리아에서는 10-11월 동안 해남고구마를 원재료로 한 고구마 아이스크림 케이크와 프리미엄 아이스크림, 아이스 찹쌀떡 등 4종의 신상품을 출시, 판매할 계획이다.

신제품 재료는 해남산 고구마 1t가량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며, 해남군은 안정적인 납품이 가능한 법인을 선정해 고품질 고구마를 공급하기로 했다.

협약을 통해 해남군과 비알코리아는 농수산물 판로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의 소득향상은 물론 농수산물의 소비확대에 협력키로 했다.

또 이번 고구마 아이스크림 외에도 전국 최대 생산량을 자랑하는 해남군의 우수한 농수특산물을 활용해 다양한 형태의 가공식품과 빵, 떡 등 외식사업까지 확대해 공동발전을 모색해 나갈 계획이다.

명현관 해남군수는 "세계적 브랜드를 보유한 비알코리아와 손잡고 해남농수산물의 소비확대를 위한 의미있는 도전을 하게 됐다"면서 "해남군에서도 다양한 마케팅 지원과 더불어 농가와 협력해 더 좋은 품질의 농수산물이 생산 공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해남=박희석 기자 dia@

포스코 친환경 기가스틸 100만t 생산체제 구축

광양제철소에 제조설비 신·증설

친환경 소재 대표기업 포스코가 미래차 강판 수요 대응과 시장 선점을 위해 기가스틸(초고강도 경량강판) 100만t 생산체제를 구축했다.

최근 자동차산업이 강화되는 환경규제에 대응하기 위해 친환경차 위주로 산업구조 재편이 가속화되고 있는 가운데 포스코는 친환경차 시장 확대, 차체 경량화 요구 등 자동차산업의 메가트렌드 변화에 대응하고자 지난 '17년부터 약 5,000억원을 순차적으로 투자해 광양제철소 부지내 기가급 강재 제조설비를 신·증설해왔다.

이와 관련 포스코는 최대 0.5mm 두께까지 얇게 만들면서도 폭은 1650mm까지 키울 수 있는 박물 전용 압연기(ZRM)를 도입해 타사가 생산하기 어려운 폭넓은 제품까지 공급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했다. 또 엄격해지는 고객사의 품질 관리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 열연공정 내 기열과 냉각시 정밀한 온도 관리가 가능한 설비를 신·증설하고, 강

판이 전면에 걸쳐 울렁임 없이 평평함을 최대한 유지토록 정정 능력도 증강했다.

아연도금강판을 생산하던 광양 7CGL을 AI-HPF용 소재까지 생산할 수 있도록 설비를 보완해 기존 냉간성형용 기가스틸 위주의 제품 포트폴리오를 열간성형용 제품까지 다변화시켰다.

포스코의 기가스틸은 기존 알루미늄 소재 대비 3배 이상 높은 강도에 성형성과 경제성까지 겸비해 국내외 주요 자동차사의 신차 모델에 꾸준히 적용되어 오고 있다. 주로 외부 충격시 변형을 최소화 해야하는 차량 바디 부위나 차체 중량을 지지하는 현가장치 등에 적용되어 내구성과 안전성은 물론 15-30%의 중량 감소로 연비 향상을 통한 주행거리 증가, 배출가스 감축 효과 등을 입증했다.

이와 함께 소재 생산에서부터 부품 제조 시까지 발생하는 이산화탄소량을 비교할 때 절감은 알루미늄의 4분의 1 수준으로 매우 친환경적이라는게 포스코 측의 설명이다.

포스코 관계자는 "차량 내 기가스틸 적용 범위



지난 17일 포스코는 광양제철소에서 포스코 김학동 대표이사 사장, 김영록 전남도지사, 서동용 국회의원, 르노삼성 황갑식 구매본부장, 엠에스오트렉 이강섭 대표이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친환경 기가스틸(초고강도 경량강판) 100만t 생산체제 구축 행사를 가졌다. <광양제철소 제공>

확대를 위해 자동차사와 공동 연구를 추진 중"이라며 "개선된 설비경쟁력을 기반으로 차세대 강

종 개발에도 더욱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라고 밝혔다. /광양=김대수 기자 kds@kwangju.co.kr

나주 동수오량농공단지 복합문화센터 건립 확정

산단공단 공모 선정 40억원 확보

지상 3층 규모 2023년 준공

나주 동수오량농공단지에 활력을 불어넣어 줄 복합문화센터 건립사업이 확정됐다.

나주시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지원하고 한국산업단지공단이 주관한 '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건립 공모사업'에 동수오량농공단지가 사업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사업은 그간 국가산단과 일반산단에 만 지원하던 것을 농공단지까지 처음으로 확대해 전국 15개 산단이 치열한 경쟁을 펼쳤지만 나주시가 최종 선정의 영예를 안았다.

이번 사업 선정으로 나주에서 가장 노후화된 동수오량농공단지에는 산업단지 재활성화를 위한 복합문화 기반 인프라가 집적된다.

복합문화센터는 현 농공단지 관리사무소 여유

부지에 나주시가 국비 28억원·지방비 12억원 등 총 40억원을 투입해 지상 3층 규모로 2023년까지 준공할 예정이다.

근로자와 지역주민이 함께 이용하게 될 센터에는 카페테리아, 체력단련실, 미디어실, 업무지원용 세미나실, 정보검색실, 근로자 평생교육을 위한 프로그램실 등이 들어선다.

동수오량농공단지는 지난 1990~1992년에 단계별로 조성돼 지역경제를 견인해 왔지만 현재는 시

설 노후화로 임주기업들이 인력수급에 어려움을 겪어오고 있다.

하지만 복합문화센터가 건립되면 근로자 삶의 질 제고를 통해 고질적인 노후농공단지 인력 부족난 등을 해소하는데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강인규 나주시장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생산현장에서 노력하고 있는 임주업체 기업인들과 근로자 분들께 감사드립니다"면서 "복합문화센터를 근로자를 비롯해 인근 지역주민과의 대화의 장으로 확대 운영할 경우 단지 환경개선과 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 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나주=김민수 기자 kms@kwangju.co.kr

보성군 복내 동교 1·2지구

지적 재조사 사업 완료

보성군이 복내 동교1·2지구(32만7013.6㎡) 지적재조사 사업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복내 동교1·2지구는 지난해 3월 지적재조사 측량을 시작했으며 경계협의, 경계결정위원회 심의 등 행정적 절차를 거쳐 경계를 확정했다.

군은 기존 토지대장과 지적도 등을 폐쇄하고 새로운 지적공부를 작성했으며 이후 면적 증감에 따른 조정금 정산과 등기 촉탁을 진행할 예정이다.

지적재조사 사업은 2030년까지 지적공부 경계와 토지의 현황 경계가 불일치한 불부합 지역을 새롭게 조사·측량, 지역민의 재산권 보호와 국토의 효율적인 관리를 목적으로 진행하는 국가사업이다. /보성=김용백 기자 kyb@kwangju.co.kr

건강한 생활을 위한 스마트 에어가전이 한 곳에!

DK 디케이 주식회사
www.e-dk.co.kr

벽걸이공기청정기 (36평)
DAP-2299****

mini air(DAP-0403****)
공기청정기 + 블루투스 스피커

0420 공기청정기 (13평)
DAP-0420ANWG

S9 공기청정기 (16평)
DAP-2216NAWH

소비자만족센터(구입 및 A/S)
1544-1154